



東 · 亞 · 文 · 化 · 42

순자 음악론에 나타난 음악의 의의와 작용

조 정 은

1. 머리말
2. 악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는 순자
3. 순자가 주목한 음악의 특성
4. 음악과 마음 사이의 관계
5. 맺음말

순자 음악론에 나타난 음악의 의의와 작용

조 정 은*

1. 머리말

유가에서 악樂¹⁾은 예로 대표되는 도덕적 가치와 관련되어 자주 언급된다.²⁾ 따라서 음악을 평가할 때는 그 미적 측면뿐 아니라 도덕적 측면도 고려된다. 아름답다는 것만으로는 최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고, 그 아름다움도 도덕적 자각을 일깨울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도덕적 자각은 음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체적 의지와 음악 자체가 유발하는 일깨움의 효과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순자는 이 중 특히 음악이 유발하는 효과에

*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 1) 이 글에서는 '악'과 '음악'이란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 이 중 '음악'이 더 함의가 넓은 것으로 음악 속에 악의 개념이 포함된다. '예'와 병립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악기」에서 정의하듯 노래와 악기, 무용이 수반되는 대규모의 음악임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특별히 '악'을 사용하였다.
- 2) 예와 악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대 종교적 의례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박낙규는 "예는 제정일치 시대에 주로 지배계층에서 행해지던 주술적, 종교적인 것과 서민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전개되던 세속적인 것이 있었는데, 유가는 전자의 성질을 어느 정도 보유키면서 예에 도덕적인 의미와 천왕이 정한 규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악은 의례 속에서 연주된 만큼 예에 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예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정치적 의의를 부여받게 되었다." (박낙규, 「고대중국의 예악사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 15)라고 보면서 예악의 초기 관계를 설명한다.

주목하여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순자 이전에도 음악에 도덕적인 색채를 입혔지만 이는 주로 음악에 대한 평가나 음악 감상의 양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경우 도덕적 가치에 음악의 의의가 좌우되는 측면은 컸지만 그 가치가 음악 안에 담겨서 음악 자체로 절대적 효용과 의의를 지닌다는 생각은 미비했다.³⁾ 따라서 음악의 지위 역시 뚜렷이 부각되지 못한 채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대상화되어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음악의 지위는 순자에 의해서 뚜렷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순자는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음악의 특성에 주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순자는 예와 악의 기능을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악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그 지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결국 유가적 예치사회이다. 비록 순자가 말하는 악의 효과가 예치사회의 이상과 맞닿아 있어서 악이 여전히 예의 지평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악은 예의 기준에서 평가받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예의 가치를 실어 전달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부여가 된 음악은 외부의 평가기준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음악이 마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비단 순자만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음악을 정면으로 거부한 묵자도 음악의 이러한 측면을 인정

3) 개인의 도덕적 의지에 대한 음악의 역할보다는 음악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가 더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살펴볼 맹자는 음악이 어떠한가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신 음악을 어떻게 즐길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 같은 음악이더라도 그 즐기는 방식이 그릇되면 거부되는 것이고, 올바르게 수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자의 관심은 좋은 음악의 제정에 있었다. 그리고 그 좋은 음악은 유가적 이상을 표현해내고 있고, 이 때문에 유가적 이상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어진 것이다. 순자 이전에는 악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순자에 이르러 악이 갖는 특성이 부각되며 그 기능이 뚜렷이 지적된다. 이 글에서는 음악이 유가적 이상을 표현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순자가 악에 주목한 이유, 그리고 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했다. 하지만 목자는 순자와는 달리 음악을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 내세우지 않는다. 마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순자의 입장을 목자의 입장과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순자가 어째서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음악에 의지하려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음악이 올바른 행위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순자의 시각에서 마음의 작동양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순자』 「악론」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진 「악기」에 서술된 성성에 대한 내용은 이를 위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악기」에 서술된 성성을 근거로 「악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구조를 세워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구조는 순자의 시각에 잘 대응된다. 「악론」과 「악기」에 근거한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음악이 마음에 작용하는 방식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음악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

순자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선 확인하고, 목자와의 비교를 통해 그러한 음악이 어떤 배경 하에 강조되는지 순자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볼 것이다. 이어서 마음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음악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접근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순자가 음악을 강조한 배경과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한 양상이 자신의 철학에 밀접하게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악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는 순자

1) 순자 이전 유가의 음악에 대한 입장

순자 이전의 유가도 음악을 자주 언급하였다. 공자와 맹자는 음악의 심미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음악을 대상으로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공자는 음악을 듣고 덕성이 고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음악의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였다.⁴⁾ 『논어』에는 공자가 음악을 듣고 느낀 감동을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⁵⁾ 이 경우 공자의 감동은 음악을 통해 유추되는 사회적 선(도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공자는 음악의 형식적 측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되는 사회적 선도 중시했고,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은 소악과 무악을 평가하면서 미와 선을 모두 갖춘 소악에 우위의 가치를 두는 공자의 말⁶⁾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공자는 음악의 심미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지만 단지 이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심미적 기능에서 도덕심 유발의 기능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맹자는 음악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므로⁷⁾ 그 즐거움을 군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하지 말고 널리 백성과 함께 해야만 한다(與民同樂)는 입장에서, 즉 음악감상의 양태를 지적하며 도덕적인 측면

4) 음악에 대한 단편적인 감상을 말하는 공자를 대상으로 뚜렷하게 그 음악적 입장을 세워보기는 어렵지만 예가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論語』「八佾」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통해 보더라도 최소한 음악을 도덕적인 측면과 결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악과 결부된 덕성이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음악이 지니는 덕성의 유발 효과 중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5) 「述而」13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曰, “不圖爲樂之至於斯也。”

6) 「八佾」25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7) 『맹자』「고자상」7에는 맛·소리 아름다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맹자는 이어서 理와 義를 우리 마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입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맹자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미감은 理와 義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만큼 명백한 것이었다. 맹자의 음악은 그저 맛있는 음식과 동급에 있는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다. 맛있는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해 주듯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을 말하였다.⁸⁾ 맹자는 사단四端을 확충시켜서 사덕四德을 이룬다⁹⁾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입장은 음악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대로 반영된다 즉, 맹자는 육구의 대상으로 음악을 제시하면서 이를 어떻게 추구해야 내 마음속의 덕성이 바르게 키워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맹자에게 음악은 육구의 한 대상일 뿐 마음속의 덕성을 키울 수 있는 자극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공자와 맹자는 음악의 심미적 측면을 인정하며 음악과 관련된 감정이나 행동양식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회와 관련된 음악의 역할을 이야기하였다. 심미적 측면을 인정하되 단지 개인적 차원의 즐거움에만 머물지 말고 유가가 꿈꾸는 사회의 모형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¹⁰⁾ 하지만 이 경우 음악 자체가 지니는 사회에 대한 순기능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악이 지닌 특성과 이에 근거한 효용에 주

8) 맹자는 세속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양 혜왕에게 지금 유행하는 세속의 음악도 결국 선왕이 만든 예전 음악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단지 그 즐기는 행위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온 백성들과 더불어 즐겨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므로 임금이 세속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한다 (『孟子』「梁惠王下」 1) 이러한 맹자의 입장은 연못가에서 양 혜왕과 대화할 때(『梁惠王上』 2), 그리고 설궁에서 제 선왕과 대화할 때(『梁惠王下』4)에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9) 『孟子』「公孫丑上」 6 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 · 凡有四端於我者，知皆擴而充之矣。若火之始然，泉之始達，苟能充之，足以保四海，苟不充之，不足以事父母。

10) 공자가 음악과 도덕심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것을 통해 음악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여가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음악의 덕성 유발 효과 중 어느 것에 더 크게 의지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이 두 측면 중 각기 다른 쪽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강조했다. 따라서 맹자는 음악을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고, 단지 인간이 지닌 육구의 한 예로서 다룰 뿐이다 하지만 순자는 음악에 관심을 둔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까지나 음악과 같은 외부의 모범을 전제한 이후의 도덕적 의지에 관심이 있었다.

목한 것은 순자에서 시작되며,¹¹⁾ 음악이 갖는 개인,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기
능도 이에 걸맞게 훨씬 더 막강해진다. 공자와 맹자가 덕성을 통해 음악을 도
덕적으로 느끼고자 했다면 순자는 도덕적 가치가 담긴 음악을 통해 덕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2) 순자에게 악樂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순자는 맹자처럼 도덕성을 이끌어내는 인간 마음속의 바람직한 경향성을
믿지 않았다. 바람직한 경향성이 제대로 드러나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맹자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싹에 기인한다고 보고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맡겼지만 순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옳게 반응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¹²⁾ 따라서 음악에서도 단지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음악이
아닌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모범적인 지침으로서의 음악을 중요하게 생
각했다. 비록 순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은 음악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란 맹자의 입장을 공유했지만¹³⁾ 맹자는 음악을 감상차원에만 머물게 하

11) 음악 사상을 다루면서 순자를 중요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禮와 구분되는 樂
의 기능이 뚜렷하게 지적되기 때문이다(『荀子』「樂論」·且樂也者, 和之不可變也, 禮
也者, 理之不可易者也 樂合同, 禮別異. 禮樂之統, 管乎人心矣 窮本極變, 樂之情也,
著誠去僞, 禮之經也)

12) 『荀子』「性惡」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 故必將有
師法之化, 禮義之道, 然後出於辭讓, 合於文理而歸於治 用此觀之, 然則人之性惡明
矣! 其善者僞也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자발적으로 선
하게 행동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규범과 예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비로소 선할 수 있다
고 믿었다. 음악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13) 순자가 음악을 사회통치의 효과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음악을 통
해 누구나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음악에 반응
하는 양상은 누구냐를 막론하고 모두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맹자의 공통된 美感和 상통하는 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맹자는 육구의 대상으

고 이후의 행동에 주목한 반면, 순자는 음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간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역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다. 순자에게 음악은 맹자가 생각한 음악 이상의 것이었다.

이상적 사회를 추구하면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덕성의 발현에 기대려하지 않고 외재적 사회규범인 예禮에 의지하려 했던 것처럼 음악 역시 외부에서 이미 특정한 시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하였다. 인간의 자연적 성향(性)인 욕구(欲)를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무질서 상태인 악惡으로 진행하고, 오직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노력(僞)으로부터 모든 선함이 생길 것이라고 본 순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제정된 음악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다스리려 한 시도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순자에게서 악樂이 부각되는 것은 외재적 규범으로서 예禮가 강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순자에게 예는 이상적 사회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질서체제였다. 순자는 예를 통해 인간들의 무한한 욕구추구를 절제시킬 수 있고, 이로써 무절제한 욕구추구로부터 오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분함이 그어지고, 이를 통해 무한한 욕구추구가 절제되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이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¹⁴⁾ 순자가 예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아래의 구절이 잘 보여준다.

로서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양상으로 반응한다고 말한 것이고, 순자는 의도대로 이끌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갈린다.

14) 『荀子』「禮論」. 禮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

하늘과 땅은 [예로써] 합치되고 해와 달도 [예로써] 밝으며, 사철은 [예로써] 차례를 이루고 별의 운행도 [예로써] 행해지며, 강물은 [예로써] 흐르고 만물도 [예로써] 번창하며, 좋고 나쁜 것도 [예로써] 조절되고 기쁨과 노여움도 [예로써] 합당하게 된다. 아랫자리에 있으면 순종을 하고 윗자리에 있으면 밝게 다스려 만물이 변화해도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예를 어기면 곧 망하게 된다. 예야말로 어찌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¹⁵⁾

먹줄이란 곧음의 표준이고, 저울은 공평함의 표준이며, 굽은 자와 등근 자는 모퉁과 동그라미의 표준이듯이 예란 사람들의 올바른 도의 극점이다.¹⁶⁾

예는 사람이 지켜야 할 모범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해와 달, 사철의 움직임까지 관여하는 절대적 역할까지 부여받게 된다. 순자는 악에 대해서도 다분히 예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그 역할을 부여한다. 순자는 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북·저·경·금·슬·우·생 [같은 악기], 소·하·호·무 [같은 악], 작·환·삭·간·상 [같은 악무]는 바로 군자들이 변화로 인한 감동을 드러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는 형식이다.¹⁷⁾

순자는 상복을 입는 것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형식이듯이¹⁸⁾ 악 역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악이 예

15) 『荀子』「禮論」: 天地以合, 日月以明, 四時以序, 星辰以行, 江河以流, 萬物以昌, 好惡以節, 喜怒以當, 以爲下則順, 以爲上則明, 萬變不亂. 貳之則喪也. 禮豈不至矣哉!

16) 『荀子』「禮論」 繩者, 直之至, 衡者, 平之至, 規矩者, 方圓之至, 禮者, 人道之極也

17) 『荀子』「禮論」: 故鐘鼓管磬, 琴瑟竽笙, 韶夏護武, 洵桓簡象, 是君子之所以爲憚說其所喜樂之文也.

18) 『荀子』「禮論」 齊衰苴杖居廬食粥席薪枕塊, 是君子之所以爲憚說其所哀痛之文也.

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자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분한을 강조하는 예와는 달리 조화를 강조하는 악을 말한다.¹⁹⁾ 하지만 비록 악만의 특성이 이전 시대에 비해 부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예의 시각에서 악을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기능의 구분보다는 동일한 지향을 갖는 측면에 더 무게가 실린다.²⁰⁾ 악이 행해진 효과에 대해 「악론」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악은 종묘 가운데에서 임금과 신하와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된다. 집안에서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친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된다. 마을의 어른들을 모신 가운데 나이 많은 이와 적은 이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된다.²¹⁾

악이란 밖으로 나가서는 적을 정벌하고 벌을 줄 수 있으며, 안으로 들어와서는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할 수 있게 한다.²²⁾

악이 증정하고 화평하면 백성들은 화합하며 빛나가지 않게 되고, 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백성들이 화합하고 질서가 있으면 나라의 군대는 강하고 성이 견고해져 적국이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²³⁾

19) 『荀子』「樂論」: 且樂也者, 和之不可變也, 禮也者, 理之不可易者也. 樂合同, 禮別異.

20) 악이 지니는 조화의 성격은 「樂記」에 이르러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樂論」은 이러한 성격 보다는 악이 잘 행해졌을 때 도달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악이 잘 행해졌을 때 도달하는 상태란 곧 유가적 예치사회의 이상적 모습이다. 결국, 「樂論」에서 악은 예와 동일한 지향을 갖는 측면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

21) 『荀子』「樂論」: 故樂在宗廟之中, 君臣上下同聽之, 則莫不和敬. 閭門之內, 父子兄弟同聽之, 則莫不和親. 鄉里族長之中, 長少同聽之, 則莫不和順.

22) 『荀子』「樂論」: 故樂者, 出所以征誅也, 入所以揖讓也.

23) 『荀子』「樂論」: 樂中平則民和而不流, 樂肅莊則民齊而不亂. 民和齊則兵勁城固, 敵國

악의 시행결과로 공경과 순종 같은 측면이 언급되며 예의 효용이 그대로 음악에 실리게 된다. 또한 악을 통해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고, 적을 정벌할 수도 있다고 하여 그 효용에 과도한 의미부여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순자가 말하는 악은 예와 동일한 지향을 갖는 측면이 강조된다. 그리고 예를 위해 이처럼 악을 앞세울 수 있었던 이유로 악이 지닌 마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격이 순자의 요구에 잘 부응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3. 순자가 주목한 음악의 특성

1) 음악이 마음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

순자는 음악이 마음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음악론을 전개한다. 「악론」에서는 사람은 모두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없을 수는 없다²⁴⁾고 말한다. 순자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음악을 바람직하게 제정하여 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고자 한 것에 있었다. 「악론」은 마음속 감정으로부터 음악의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역으로 음악이 마음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²⁵⁾ 다음의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준다.

不敢令嬰也

24) 『荀子』 「樂論」 夫樂者，樂也。人情之所必不免也，故人不能無樂。

25) 순자는 사람의 감정에 '즐거움(樂)' 이란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우선 마음으로부터 음악으로의 진행을 언급하고, 이후에는 마음과 음악 사이의 밀접성을 토대로 음악이 마음에 주는 역방향의 영향을 주로 다룬다. 마음으로부터 음악의 발생이 필수적인 만큼 음악이 마음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순자의 기본 전제였다고 볼 수 있다.

노래와 음악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변화시킨다. 음악이 중정하고 화평하면 백성들은 조화를 이뤄 빛나가지 않게 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 음악이 요염하면서도 음흥하면 백성들은 빛나가고 그릇되며 야비하고 천박하게 된다.²⁶⁾

음악을 통해 행동을 이끈다는 것은 음악이 그만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음악이 형성되는 과정을 앞세워 마음과 음악 사이의 밀접성을 전제한 바탕 위에 음악이 마음에 행사하는 강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에 힘입어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음악을 삼고 있다.

음악이 지니는 마음에 대한 강한 영향력은 비단 순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도 충분히 긍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음악을 강하게 거부했던 묵자마저도 이러한 음악의 성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성격에 근거하였으되 유독 순자만이 음악을 전면에 배치시켰던 이유는 순자의 인간관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은 묵자의 음악관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잘 이해될 수 있다.

2) 묵자를 통해 본 순자가 음악에 주목한 이유

3.2.1. 음악을 비난한 묵자

묵자는 전국시대 초기의 혼란한 사회상황에 직면하여 철저하게 피지배층을 대변하는 입장에 섰다. 묵자가 생각한 최우선 과제는 공리주의적 원리에

26) 『荀子』 「樂論」: 夫聲樂之入人也深, 其化人也速 ... 樂中平則民和而不流, 樂肅莊則民齊而不亂. · 樂姚冶以險, 則民流慢鄙賤矣.

근거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의식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화를 중요하게 여긴 목자에게 음악은 설령 미적 측면이 인정될지라도 단지 여유 있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향락의 대상일 뿐이었다. 목자가 음악이 지니는 미적 성격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목자가 음악을 비난한 이유는 큰 종과 북을림, 금, 술, 우, 생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요, 조각한 화려한 문장의 색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요, 볶은 고기와 구운 고기의 맛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요, 높은 누대나 좋은 별장, 깊숙한 뜰에서 거처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비록 몸이 그 편안함을 알고, 입이 맛있는 것을 알고, 눈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귀가 즐거운 것을 알지만 위로 상고하여 볼 때 성왕의 일과 부합되지 않고, 아래로 헤아려 볼 때 만백성의 이로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한 것이다.²⁷⁾

목자는 음악이 맛있는 고기나 편안한 집처럼 사람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목자는 음악이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음악이 지닌 미적인 성격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목자는 다만 음악을 즐기는 행위를 거부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만백성의 이로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만약 음악이 만백성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면 목자는 당연히 음악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의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옛 성왕들도 또한 일찍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배와 수

27) 『墨子』「非樂上」是故子墨子之所以非樂者，非以大鍾鳴鼓琴瑟 笙之聲以爲不樂也，非以刻鏤華文章之色，以爲不美也，非以櫛棊煎炙之味 以爲不甘也，非以高台厚 邃野之居，以爲不安也。雖身知其安也，口知其甘也，目知其美也，耳知其樂也。然上考之，不中聖王之事，下度之，不中萬民之利。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례를 만들었다 이미 다 이루어졌을 때 말하기를, “장차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또] 말하기를, “배를 사용하는 곳은 물이고, 수레를 사용하는 곳은 육지이다. 군자는 밭을 쉬게 할 수 있고, 소인은 등과 배를 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만백성이 재물을 내어 그에게 주면서도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이익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기가 도리어 백성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감히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니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성왕이 배와 수레를 만든 것에 비유된다면 나는 감히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²⁸⁾

한쪽에서는 당장 직면한 생활고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착취를 통해 쌓은 재화로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필요 이상의 즐거움을 누리다면 이는 틀림없이 악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성에게는 세 가지 환란이 있다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자가 옷을 얻지 못하고, 수고로운 자가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의 큰 환란인 것이다. 그러니 종을 울리고 복을 울리고 금슬을 뜯고 우생을 불면서 방패와 도끼 [같은 무기]를 들 [면서 춤을 추면 백성의 의식을 마련할 재물을 장차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²⁹⁾

피지배층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일에 지쳐 죽어 가는데, 지배층은

28) 『墨子』「非樂上」古者聖王，亦嘗厚措斂乎萬民，以爲舟車，既以成矣，曰，吾將惡許用之，曰，舟用之水，車用之陸。君子息其足焉，小人休其肩背焉。故萬民出財齎而予之，不敢以爲戚恨者，何也，以其反中民之利也。然則樂器反中民之利，亦若此，即我弗敢非也。然則當用樂器，譬之，若聖王之爲舟車也，即我弗敢非也。

29) 『墨子』「非樂上」民有三患。飢者不得食，寒者不得衣，勞者不得息，三者民之巨患也。然即當爲之撞巨鐘，擊鳴鼓彈琴瑟吹竽笙，而揚千戚，民衣食之財，將安可得乎。

한가로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재화를 가지고 굳이 향유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을 애써 추구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자(兼愛) 한 목자의 기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목자에게 음악은 비록 미적 성격을 지니고, 또 그 때문에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기에 거부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목자가 음악을 거부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노동하는 인간상에 위배된다는 데에 있다. 노동을 통해 물질적 재화를 축적해야 하는 당장의 급선무 앞에서 한가하게 음악을 위해 시간과 재화를 허비하는 일을 목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자의 음악비판에 대해 만약 누군가가 노동요를 통해 생산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음악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으로써 노동을 하기 위한 더 나은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 목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혹은 유가 입장에서 '음악이 제대로 행해지면 사회가 잘 유지되어 다수의 백성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큰 이익이 창출되는데도 어째서 음악을 거부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면 목자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철저하게 이익의 입장에서 서서 음악을 거부한 목자에게 이익 증진의 이유를 들어 음악을 옹호하려 했다면 이에 대해 목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 목자가 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을지라도³⁰⁾ 최소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솔깃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토록 강하게 음악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장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목자가 공격하는 음악은 결코 민간의 소박한 노래와 기악이 아니라 큰 종파 북, 금, 슬, 우, 생이 수반되는 유가적 가치가 담겨있는 음악이다. 즉, 거창한

30) 목자는 개인 차원에서 감상되는 음악 등에 대해서는 애초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음악의 효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의미를 부여받으며 재화를 낭비해대는 음악인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지적과 같은 비판은 목자의 비악非樂을 공격할 수 없다³¹⁾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유가적 음악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의羲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익³²⁾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에 답을 해야 한다.

3.2.2. 마음을 이끄는 음악이 불필요했던 목자

순자가 굳이 목자의 이익 입장에서 반론을 편다면 음악은 사회적 가치체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약간의 재화를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순자는 「악론」에서 음악은 혼란을 잠재우고, 만물의 변화를 다스리고, 세상을 바로 잡아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어째서 목자는 음악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³³⁾ 이를 보면 순자가 이익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자신이 견지하는 사회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즉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음악을 파악했음은 분

31) 楊蔭瀏는 『中國古代音樂史稿』上册(人民音樂出版社, 1980, p 94)에서 “목자는 현실 생활에서 대중에게 필요한 음악의 역할과 음악발전에 끼친 대중의 창조와 공헌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목자에게 이러한 비판은 적합하지 않다. 목자가 거부했던 음악은 통치자에 의해 행해지는 대량의 물자가 투입되는 거대한 음악이었지 일반 대중의 음악은 아니었다

32) 목자의 모토라 할 수 ‘兼相愛 交相利’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한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목자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겸애는 이익과 결부되어 자주 이야기된다. 목자가 말하는 이익은 유가가 비판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와는 다른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이익이다. 목자의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이익은 유가 입장에서는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음악이란 주장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러한 유가의 음악옹호론은 목자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반박되어야 한다.

33) 『荀子』「樂論」 先王惡其亂也，故制雅頌之聲以道之 是先王立樂之方也，而墨子非之，奈何！ · 足以治萬變 是先王立樂之術也，而墨子非之，奈何！ · · 故樂者，天下之大齊也，中和之紀也，人情之所必不免也 是先王立樂之術也，而墨子非之，奈何！

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이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음악의 미적 측면을 인정한 목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설파하기 위해 결코 음악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는 목자가 보는 인간관과 관련이 있다. 목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태산을 낀 채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맞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

태산을 낀 채로 장강이나 황하는 뛰어 건너는 것은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생존한 이래로 실행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일은 옛날의 성인이신 여섯 임금께서 친히 행하셨던 것이다³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태산을 끼고 강을 건너는 것에 비견될 만큼 높은 실천력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목자는 옛날의 성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면 되는 것이다. 어렵고 그래서 어찌면 비록 하기 싫을지라도 신념에 따라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여 해내면 된다. 따라서 목자에게 음악을 통한 마음의 감화는 불필요했다.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음악을 제정하는 일 따위는 목자가 믿은 인간관-알면 행하는 인간-의 구도 속에서는 불필요한 일일 뿐이다.

목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로 '현명한 이를 높이고 능력에 따라 임용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³⁵⁾ 목자가 생각한 사회는 각

34) 『墨子』「兼愛下」 夫挈泰山以超江河，自古之及今，生民而來，未嘗有也。今若夫兼相愛，交相利，此自先聖六王者親行之也

35) 『墨子』「尚賢上」 子墨子言曰，今者王公大人，爲政于國家者 皆欲國家之富，人民之衆，刑政之治 然而不得富而得貧，不得衆而得寡，不得治而得亂，則是本失其所欲，得

자가 능력에 맞는 일을 적재적소에서 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한다.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태산을 끼고 강을 건너는 것만큼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도 예전 성왕들이 해냈던 선례에 비추어보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목자도 자신의 기치를 보통 사람들이 무난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목자는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뽑아서 천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 천하의 의義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목자의 의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천자에 의해 결정되어 만백성에게 하달된다. 이를 잘 따르면 하늘로부터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³⁷⁾ 결국,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원칙은 하늘에 의해 보증 받는 절대선의 강령이 되는 것이다. 고도의 실천력을 개인의 역량에만 맡겨둘 수는 없었기에 천자라는 뛰어난 지도자와 하늘이라는 감시자를 도입한 것이다.

순자 입장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즉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음악이 갖는 효용은 천자에 의해 제시되고 하늘에 의해 보증 받는 행동강령을 말하는 목자에게는 불필요했다. 목자가 개인의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의존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막무가내식의 믿음과 의지력이었고, 또한 행위를 감시하는 하늘이었다. 여기에 음악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목자의 음악비판을 강하게 반박한 순자는 이와는 다른 구도, 즉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도를 분명

其所惡 是其故何也 子墨子言曰, 是在王公大人, 爲政于國家者, 不能以尙賢事能爲政也

36) 『墨子』 「尙同中」 是故選擇天下賢良聖知辯慧之人, 立以爲天子, 使從事乎一同天下之義.

37) 『墨子』 「天志上」. 故天子者天下之窮貴也, 天下之窮富也. 故于富且貴者, 當天意而不可不順 順天意者, 兼相愛, 交相利, 必得賞. 反天意者, 別相惡, 交相賊, 必得罰.

히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2.3. 마음을 이끄는 음악이 필요했던 순자

순자는 인간을 맹자처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고, 목자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원칙에 따라 맹목적으로 실천력을 발휘하는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다. 순자는 본성(性)과 인위(僞)를 구분하며 배우고 노력하는 인위의 과정을 통해 선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³⁸⁾ 인간의 본성을 맹자가 생각하듯 잠재되어 있는 도덕심의 단초가 아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악력으로 흘러갈 욕구로 본 순자는 행위를 선함으로 이끌어 줄 모범을 인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 이 점은 천자를 통해 의를 제시하는 목자와 닮아 있지만, 목자는 강령을 믿고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 언제나 의는 외부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순자의 기준은 외부에 있는 따라야 할 모범적인 노선 이기는 하되 언젠가는 노력을 통해 나 스스로가 그 노선에 그대로 합치하게 되어 그 기준을 내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순자가 모범으로 삼는 인간상인 성인(聖人)은 누구나 노력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존재이다.³⁹⁾ 하지만 성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다. 순자는 현실 속의 모든 인간이 다 성인일 수 없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길거리의 사람이 우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길거리의 사람이 반드시 우임금처럼 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비록 우임금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임금처럼 될 수 있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사람의 발은 천

38) 『荀子』 「性惡」 不可學，不可事而在人者，謂之性，可學而能，可事而成之在人者，謂之僞，是性僞之分也

39) 『荀子』 「性惡」 今使塗之人伏術爲學，專心一志，思索執察，加日縣久，積善而不息，則通於神明，參於天地矣。故聖人者，人之所積而致也

하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나 천하를 두루 돌아다닌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⁴⁰⁾

목자는 고도의 실천력을 요구하는 자신의 강령을 설파하기 위해 성왕의 선례와 하늘의 상벌을 끌어들이며 무조건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순자는 도달하기 어려운 성인의 경지를 목표점으로 설정해 놓고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요구한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순자와 목자의 입장 사이에는 원칙 혹은 규범을 내면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이가 놓여있다. 목자는 행위를 이끌어내면 충분할 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적 동기는 필수적이지 않다. 반면 순자는 인위의 노력 과정을 통해 마음속으로부터 조금씩 체화되어 가는 것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순자에게는 사회적 가치전달을 위해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음악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내적 감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음악이 마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순자의 인간관과 관련이 있으며, 이같은 음악과 마음의 밀접한 관계는 순자가 음악론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4. 음악과 마음 사이의 관계

순자는 마음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을 앞세워 예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음악을 통한 올바른 이끌림이 가능한 마음의

40) 『荀子』 「性惡」 故塗之人可以爲禹，則然，塗之人能爲禹，未必然也 雖不能爲禹，無害可以爲禹 足可以徧行天下，然而未嘗有能徧行天下者也

구조를 『순자』 「악론」의 사상을 이은 것으로 알려진 『예기』 「악기」⁴¹⁾의 성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마음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왜 순자가 감정으로부터 형성되는 음악이 아닌 외부로부터 제시되는 음악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하게 된다.

1) 「악기」의 성성

「악기」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성성을 말한다. 이 성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악기」는 성의 욕구라고 말한다.⁴²⁾ 「악기」에서 말하는 성은 성리학의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과는 차이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천리天理로서의 성(本然之性)이 구비되어 있기에 도덕적 품성의 선천적인 차이는 내재된 천리인 성의 발현이 기질의 청탁淸濁에 의해 가려지는 정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성리학의 입장에서 「악기」의 성성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성리학에서는 천리天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성性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사람에게 리리가 들어오게 되면 기질에 의해 은폐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수양의 관건은 경건한 마음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을 때나

41) 「악론」과 「악기」는 상당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문헌 사이에 모사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악기」의 시대적 위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어서 「악론」보다 앞선 시대로, 혹은 나중 시대로 추측하는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 「악기」의 편성연대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고, 다만 ‘순자학파의 학설이 주를 이루며, 기타 유가 및 제가의 설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양승희, 『禮記』 「樂記」의 문헌적 탐구, 道原柳承國博士古稀紀念論文集, 『동방철학사상연구』, 1992, p. 597)에 동의하여 「악론」의 사상을 이어받은 「악기」라는 입장을 취했음을 밝힌다.

42) 「樂記」〈樂本〉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타나지 않았을 때나 본연의 리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질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기의 움직임이 전적으로 리를 따르게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악기」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고요한 상태의 유지를 지향하는 성이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성이다. 따라서 「악기」에서 관건은 성을 기질의 방해 없이 온전히 보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고 성의 움직임을 얼마나 조화롭게 발현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만약 치우침이 없이 절제시켜 발현시킬 수 없다면 사람이 외부의 상황에 동화되는 것으로 이는 천리天理를 없애고 인욕人欲만을 다하는 악인 것이다.⁴³⁾ 「악기」에서 말하는 천리는 성리학에서 사용하는 천리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성리학의 천리는 현실적인 모든 것의 존재 근거이자, 그것의 옳바름 여부를 판단할 당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악기」의 천리는 성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발현되는 방식을 가리킨다.⁴⁴⁾

활동하고 있지 않은 성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단지 가능태일 뿐이다.⁴⁵⁾ 가능태 상태의 성性は 외부 상황을 만나면 움직이게 되는데, 이후

43) 「樂記」(樂本): 人之好惡無節, 則是物至而人化物也 人和物也者, 滅天理而窮人欲者也

44) 天理를 따르면 情의 발현이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樂記」와 성리학의 천리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성리학에서 「樂記」의 ‘천리’에 주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樂記」의 천리는 情을 적절히 발현해 가는 과정이 천리에 맞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천리가 내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리학의 천리는 내 안의 천리를 온전히 드러내면 情이 적절히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천리가 원래 내 안에 들어있다는 차이가 있다

45) 김용옥도 “「악기」의 ‘인생이정’(人生而靜)의 정(靜)은 단지 방편적인 설정이며, 그 정(靜)이 곧 동(動)과 이원화되는 정(靜)은 아니다. 그 정(靜)은 곧 동지정(動之靜)일 뿐이요, 동(動)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는 정(靜)이다. 다시 말해서 「악기」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욕(欲) 그 자체가 아니라 욕(欲)의 발현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도을논어3』, 통나무, 2001, p. 198.)라고 하여 「악기」의 性을 가능태로 본다.

의 발현양상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心術)⁴⁶⁾이다. 결국 올바른과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마음(心)을 제대로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에서 마음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되는 마음이란 고요한 상태의 성이 움직여서 외부로 발현되려 할 때 발현되는 양상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마음인 것이다 음악은 성성의 여러 움직임 중 올바른 것만이 선택되어 발현될 수 있도록 관여함으로써 마음 [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순자의 시각에서 해석한 「악기」의 마음의 구조

「악기」의 성성을 통해 살펴보면 마음(心)⁴⁷⁾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내용의 측면으로 성성이 내재되어 있고, 성이 움직인 결과인 감정(情)이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이다 둘째는 기능의 측면으로 감정이 외부로 발현되는 양상을 조절하는 마음이다. 마음의 두 가지 의미는 순자의 시각에서도 무리 없이 설명된다.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바로 성성이다. 생의 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정미하게 외물에 감응하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것이 바로 성성이 다 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좋아함과 싫어함,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46) 「樂記」(樂言):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47) 순자의 마음(心)은 性과 구분되어 설명되곤 한다. 예를 들면, 勞思光은 순자의 마음에 대해 '텅비어(空心) 도덕적 주체라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이치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性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 본다(노사광저, 정인재역, 「중국철학사」(고대편), pp. 336-338) 노사광은 심과 성을 구분하여 설명했지만 둘의 관계에 대한 정설은 없다 이 글에서는 心과 性을 이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마음(心)을 순자의 性과 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밝힌다.

을 감정(情)이라고 한다. 감정이 생긴 후의 마음(心)의 취사선택이 바로 사려(慮)이다. 마음이 사려하여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인위(僞)라고 한다. 사려가 쌓이고 능력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라 한다.⁴⁸⁾

순자는 성성이 외부 상황에 감응하여 좋아하고 싫어함 등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단계가 바로 위에서 말한 마음의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한다. 감정이 생긴 후의 마음의 취사선택을 사려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사려기능이 마음의 두 번째 의미이다. 사려한 결과에 따라 행동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인위인데, 순자는 인위를 통해서만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⁴⁹⁾

정리하면, 「악론」과 「악기」의 감정 발현체계는 ‘고요한 상태의 성性 → 성이 외부 상황에 반응하여 움직임(정情의 형성) → 감정(情)이 마음의 제재작용을 거쳐 외부로 표출’ 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이 외부상황에 반응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순자의 표현을 빌리면 ‘정미하게 감응하여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精合感應, 不事而自然) 것이다. 마음의 제재작용이란 바로 순자가 말한 ‘사려’이다.

3) 음악 제정의 필요성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즉, 성性으로부터 감정이 생기는 과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진행인 것이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감정을

48) 『荀子』 「正名」· 生之所以然者, 謂之性, 生之和所生, 精合感應, 不事而自然, 謂之性性之好惡喜怒哀樂, 謂之情, 情然而心爲之擇, 謂之慮, 心慮而能爲之動, 謂之爲, 慮積焉, 能習焉, 而後成, 謂之僞.

49) 『荀子』 「性惡」· 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

아무런 절제 없이 표출시킨다면 이는 욕구를 무절제하게 따르는 것으로 틀림 없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발현을 인위적인 사려의 과정을 통해 조절해야만 한다. 음악이란 바로 감정이 발현되는 것을 조절하면서 형성된다. 감정이 무절제하게 표출된 것은 금수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리일 뿐이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조절 과정을 거쳐 음악을 만들어내야만 한다.⁵⁰⁾ 하지만 사람의 발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지만 실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닌 사람은 없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올바르게 발현시켜 음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음악을 만들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발현시키는 것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수행해 낼 수 있는 이는 성인밖에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의 상태를 이상향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바로 외부에서 제정하는 음악이 필요하다. 마치 사람들의 올바른 행위 규범을 외부에서 예를 설정해 제시하듯 올바른 유형의 음악을 외부에서 만들어 제시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음악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음악적 자극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준을 언젠가는 내재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음악이 마음에 작용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 「악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무릇 간사한 소리가 사람에게 감촉되면 거역하는 기가 옹하고, 거역하는

50) 「樂記」에서는 聲 音·樂을 구분한다. 감정이 무절제하게 표출된 것은 짐승도 만들어 낼 수 있는 聲이고, 절제되어 일정한 형식을 이룬 것은 音이며, 노래뿐 아니라 악기소리, 무용까지 수반된 것은 樂이라고 설명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소리'와 '음악'은 「樂記」의 聲과 音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樂記」의 음악에 대한 개념을 「樂論」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입하였다. 단, 「樂記」의 '音'을 좀 더 함의가 넓은 '음악'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기가 드러나면 혼란함이 일어나며, 바른 소리가 사람에게 감촉되면 순종하는 기가 옹하고, 순종하는 기가 드러나면 [잘] 다스려지니 선창하고 화답하는 옹함이 있어 선악이 서로 나타나게 된다⁵¹⁾

외부로부터 음악⁵²⁾이 이르면 기氣가 옹하게 되고, 어떤 기가 드러났느냐에 따라 혼란함 혹은 다스려짐의 양상이 결정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기는 음악을 듣고 생기는 감정이라 할 수 있고, 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론」의 구도대로라면 좋은 음악이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르게 반응하여 감정의 표출을 적절히 할 수 있고, 세상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 다른 어떤 구체적 상황보다도 감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음악이 제대로 배풀어질 경우 감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의 작용은 세상의 다스려짐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갈 수 있게 된다.

4) 음악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

「악론」은 사람은 누구나 즐기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음악이 사람에게 없을 수는 없다고 하여 마음속 감정으로부터 음악이 생겨나는 것을 필연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악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에 미치는 작용이지 마음속 감정으로부터 형성되는 음악은 아니다.⁵³⁾ 감정이 발현하여 음악이 생겨난다고 할 때 순자가 끌어오

51) 『荀子』「樂論」凡姦聲感人而逆氣應之，逆氣成象而亂生焉 正聲感人而順氣應之，順氣成象而治生焉 唱和有應，善惡相象.

52) 원문에는 ‘聲’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악기」에 나온 聲·音·樂의 聲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의 聲은 음악의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53) 이는 「악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津田左右吉은 「악기」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漢儒의 禮樂說」(『東洋學報』 제19권, 동경, 1931, p 71)에서 ‘樂이 人情’이라는 사실과

고 싶었던 것은 단지 감정과 음악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었지 실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생기는 음악에 대한 문제는 논의의 것이다. 감정이 언제 어디서나 올바르게 표현되어 모범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성인에게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단지 이상적으로 설정될 뿐이다. 이러한 경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정의 발현양상이다. 따라서 순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방치할 경우 제멋대로 표출될 감정을 감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음악을 통해 올바르게 이끄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정되는 음악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외부에서 제정되는 음악은 성성이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인 결과 생겨난 감정이 올바르게 발현되도록 마음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제대로 된 음악으로 볼 수 없다. 음악이란 모름지기 특정 기준에 맞춰 일정한 형식을 이룬 것이어야 하고, 이를 체현한 이상적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여 감정이 특정 기준에 맞게 발현되도록 도와준다. 이상적 음악이란 성왕이 제정했다는 권위를 가지고 제시되면서 완벽한 전형임을 표방하지만 실제 음악 속에 투영되는 가치는 순자가 이루고자 했던 예치사회의 이상과 맞닿아 있다.

‘樂으로써 백성을 교화한다’는 상호 무관한 주장들이 교착되고 있다고 말한다(박낙규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pp. 30-33) 하지만 음악과 마음 사이의 양방향의 경로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다 人情으로서의 樂이란 단지 방편적인 설정일 뿐 실제 의미있는 상황은 아니다. 人情으로부터 생기는 樂은 일반인에게는 의미가 없고 성인의 경우만 가능한 상황으로 이상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음악으로의 진행이 일반인에게는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기에 성인의 음악임을 표방하는 외부에서 제정한 음악이 마음에 작용하도록 경로를 설정한다. 이 경로를 통해 마음의 기능은 잘 작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악, 나아가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구도로 이해해야 한다

5. 맺음말

음악은 순자에 와서 비로소 독자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순자 이전에도 음악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대부분 감상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순자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음악에 부여한다. 음악은 감상의 대상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그 자체 내에 예의 가치를 담고서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 역할을 한다. 순자가 생각할 때 인간은 비록 내버려둘 경우 악惡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욕구를 가졌지만 인위의 노력을 통해 선善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다. 인위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범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순자는 예禮를 강조하고, 같은 맥락에서 악樂을 강조한다. 순자의 악은 다분히 예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중요성이 이야기된다. 즉, 악의 이상은 곧 예의 이상인 것이다.

예치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음악의 기능에 주목한 것은 순자의 인간관과 관련된다. 순자와 목자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위의 규범을 정의하고 있다. 순자에게 외부의 규범은 언젠가는 내재화 되어야 할 준칙이다. 따라서 올바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동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목자에게 외부의 규범이란 비록 내키지 않을지라도 고도의 실천력을 발휘하여 수행해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알면 무조건 행하는 인간관을 지닌 목자에게 정서적인 동기는 필수적이지 않다. 인위의 노력과정에서 정서적 동기를 중시한 순자는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음악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악론」의 사상을 이은 것으로 알려진 「악기」를 통해 순자가 생각한 마음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악기」에서는 인간의 성性を 무규정 상태의 가능태

로 설명한다. 외부의 자극이 이르지 않았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규정 상태이지만 외부 자극이 이르러 성성이 움직이게 되면 감정(情)이 생겨나고, 이어서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 표출양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된다. 외부 자극에 의한 움직임은 즉각적인 것으로 인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인위적인 노력은 성성이 움직여 일어난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때 필요하다. 따라서 마음은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이 즉각적으로 움직여 감정이 형성되는 측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때 작동하는 마음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순자가 음악을 통해 영향을 주고 싶었던 과정은 후자의 과정이었다.

즉각적으로 생겨난 여러 감정이 무절제하게 모두 표출된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감정이 무절제하게 표출된 것은 올바른 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출함으로써 올바른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제시되는 모범적인 음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 모범적인 음악을 통해 감정을 올바르게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외부에서 제시되는 모범적인 음악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음악에 부여되는 의미는 음악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한 순자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순자에게 음악은 예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예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음악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정서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외부의 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은 그의 인간관과 관련된다. 즉, 음악을 통한 마음의 감화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음악이 마음에 작용한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형성된 여러 감정들을 조화롭게 외부로 표출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감정의 형성은 노력을

통해 조절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것의 표출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내기는 쉽지 않고, 이 때문에 모범적인 음악을 통한 감정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의 작용이 확대되어 나가면 순자가 꿈꾼 유희적 이상사회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